

방산 새역사 썼다...UAE에 천궁-II 미사일 수출

항공기는 물론이고 적의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 '천궁-II(M-SAM)'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

천궁 미사일의 첫 수출이자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한국 방산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 거래로 기록된다.

1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천궁-II 구매 계획을 밝혔다.

UAE 국방부는 이날 "한국의 방공체계인 M-SAM을 들어올 계획"이라며 "계약 규모는 약 129억달러(약 4조1,370억원)"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공개된 무기 수출 건 중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와 계약한 잠수함 수출이 1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최고액이었다"고 말했다. 기존 기록을 3~4배 뛰어넘는 초대형 계약이 체결된다는 이야기다.



▲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대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II 발사 개념도. UAE 국방부는 지난 16일 천궁-II 도입 계획을 밝혔다. 사진 = LG넥스원

탄도탄 요격체계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유도무기 체계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이스라엘을 비롯한 소수 국가만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UAE에 천궁을 대규모로 수출하게 된다는 것은 한국의 첨단 무기체계 기술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천궁은 지대공 미사일로 전투기 등 항공기는 물론이고 속도가 훨씬 더 빠른 미사일도 요격한다. 이 때문에 적의 미사일로부터 방공망을 구성하는데 있어 핵심수단으로 활용된다.

천궁은 한국군이 운용하던 미국산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1999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2011년 초기형 천궁이 개발 완료됐고, 2016년에 실전 배치가 시작됐다. 천궁-II 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LG넥스원에서 생산해 작년 11월 처음 실전 배치됐다.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시행



▲ 사진=shuterstock

코로나19 사태 속에 51만 명이 응시한 '코로나 수능'이 19일(한국시간) 시행됐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날 관공서와 기업체 등 출근시간이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졌다. 영어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5분~1시40분 35분간은 소음 통제를 위해 항공기 이·착륙과 포 사격 등 군사훈련도 금지됐다. 수험생들은 시험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시험 도중 감독관의 신분 확인 때와 점심을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었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만 6,386명(3.3%) 늘어난 50만 9,821명이 지원했다. 재학생 수는 36만 710명으로 4.0% 증가했고 재수생 등 졸업생도 13만 4,834명으로 1.3% 늘었다. 수험생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올해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 구분없이 통합으로 치러졌다.

수능이 끝남에 따라 수시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시행되며 대입 일정이 본격화됐다. 수시 대학별 고사는 이달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된다. 수능 성적 발표는 12월 10일, 수시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 이뤄진다. 이어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대학별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한편 올해 수능은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유행 속에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이라 시험장 앞에서 펼쳐지던 후배들의 시골벽적인 응원전은 없었다.

국민 60% "노력해도 계층 이동 어렵다"

한국 성인 10명 중 6명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세대에서도 계층 이동이 쉽지 않다고 보는 비율도 절반이 넘었다.

1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한국 통계청은 이날 '2021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5.2%에 그쳤다.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0.6%였다. 2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계층 이동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은 2.5%포인트 늘었다.

자식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는 답변이 53.8%, '높다'는 답변은 29.3%로 집계됐다. 2년 전 조사보다 '낮다'는 답변은 1.7%포인트 줄

었고, '높다'는 답변은 0.4%포인트 늘었다. 본인 세대와 자식 세대 모두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 비율이 2년 전보다 소폭 늘어난 것이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보는 경향도 나타났다. 본인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계층 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14.9%에 불과했고, 65.0%는 계층 이동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스스로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는 계층 이동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한 비율이 55.9%에 달했다. 반면 가능성이 작다는 답변은 38.7%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국민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 10명 중 4명은 본인이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층에 있다고 응답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